

옛 틀을 깨고 남길 자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이사야 -

시편1:1-6, 사도행전18:1-4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의 지나서 거룩한 성일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리니, 가장 소중한 주님의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 후대를 살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합당한 레마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옛 틀을 깨고 남길 자의 새 틀로’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주 1부 예배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이사야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주 1부 예배는 이사야서 1탄이고 오늘은 이사야서 2탄이다. 금금하시면 지난 주 1부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다.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구원’ 또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름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원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원’,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고 불신앙하는 내용이 많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는 제목 자체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모두 구원 받길 축원드린다.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영혼구원, 마음과 생각의 구원, 우리의 육신과 삶의 구원이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치유되어야 한다. 영혼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줄 믿는다. 계속 다락방, 지교회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예배 드려야하기 때문이다. 예배드리며 다락방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다르고,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느껴야 한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갔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 받아야겠구나.’ 심하면 내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이 구원받아야 한다. 내 삶, 가정, 경제도 치유 정도가 아니라 구원 받아야겠구나. 구원은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원언약을 붙잡아야한다. 내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체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며 옷차림 왕의 사촌으로 보고 있다. 속된 말로 부잣집 아이들을 오렌지족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나는 오렌지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사야는 귀족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솟물로 지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이 한으로 계속 남는 것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있나이다.’ 왜 불로 지졌는가. 이제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축원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서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그루터기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썩어 바로 램넌트이다. 그 안에 거룩한 씨,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인 것이다. 그것이 그루터기이며, 램넌트이다.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예수 생명이 있는 후대가 있기 때문에 다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내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 교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린다. 그 후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옷차림, 요단, 이라크, 히스기야 왕 등, 여러 왕을 거치는데 제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그러나 의로운 왕이었다. 병들어서 회개하여 15년 수명이 연장되어 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 나중에 이사야를 틀로 쳐서 죽였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상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했다. 다니엘의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아서 언약전달이 되었나보다. 했는데 아들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꾸지람을 할 때 그들에게 벌 받을 수밖에 없던 조건이 바로 왕족과 귀족과 고관들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포로로 갈 때 제일 먼저 그 귀족들을 죽였다. 그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고관의 자녀였다는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그 부모들이 잘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자녀들은 언약을 붙잡았다. 계속 예언을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을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했는데 램넌트는 알아들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 여러분 모두 그루터기이지만, 대창부들의 포름을 들으면 깨닫는 것이 정말 다르다. 흐름을 잘 타도 잘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너무 힘들다. 훈련받지도 메시지 흐름타기도 힘들다. 자기 것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옛 틀을 깨야 한다. 그런데 램넌트들은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겉 것도 없는 것이다. 쉽게 잘 받아들이는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없으면 램넌트도 없는 것이다. 램넌트들이 다른 기대가 아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 부모님께 감사해야한다.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일로 상처입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고향에서 6.25가 지나고 구호물자를 관리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 그 당시 아버지가 그 일을 같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실무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빼돌리는 것이다. 겨울에는 여름 옷 주고 여름에는 겨울 옷 주는 등 온갖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던 그 아들이 자살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면 ‘목사님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해줘.’ 생각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 주동의 역할을 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

어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교회에 어떠한 악한 목사여도 사람의 힘으로 매장을 사기니 영적으로 피해를 보리라” 그것을 깨달았다. 지극히 선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램넌트는 달라야 한다. 우리 부모님, 직장, 학교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최고예요.”하고 거짓말 해봐라.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 살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과 7명의 램넌트가 현장에서 악한 지도자들에게 테도하고 죽이고 하지 않았다. 그들을 오히려 살렸다. 살리면서 다 가져왔다. 그것이 램넌트다. 이사야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후대 램넌트들은 포로 되기 전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다.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백성이 잘못했을 때 가만히 두실 수 없다. 계속 징계하고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 중 계속 맞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 사명자들은 아직 정금인지 덜 되었는지 불 속에서 아직도 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자취이다. 결국에는 애굽, 바벨론도 흔적 없다. 성경에 보니 그곳에 짐승들이 들어가고 사람 사는 흔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 바벨론, 앗수르 현장에 가봐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90년도에 이집트에 갔는데, 그 인류문명이 최초의 문명을 만든 현장인데, 차의 백마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가이드에게 왜 앞의 백마리가 없는가 물어보니까 낙타를 타고 다쳐서 뒤를 잘 안보기 때문에 백마리 보는 습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발견 없이 3000~4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핏 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고싶은 대로 하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큰 소리를 못 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총리이다. 이 둘이 모여 의견을 나눌 때 이스라엘의 총리 혼자만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없이 잠잠해 서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복음의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 그루터기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린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약하지만 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백 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몇 만 명이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메시야니 주라고 한다. 이것은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언약자인 여러분이 오직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한 개인과 민족과 나라는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못 도망간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자기는 이렇기 거던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쟁이였다고 그래서 참 재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썩어 안 되게 해 주세요 빌면, 썩은 아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였다고 했다.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끌려갔다고 한다. 복 받은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망가지 말고 더 맞기 전에 잘 믿기를 바란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부르더라. 그래서 अच्छ히 들었는데 복음이나 전하지 하던서 가이드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으니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 ‘직업이 목사여서 물어봤어요.’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때리셨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맞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다른 종교를 가이드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가이드 하면 꼭 기독교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고, 더 맞기 전에 잘 믿으라고 말했다. 3박 4일이 금방가지 않는가.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인생도 금방 끝나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 믿는데 집중하기를 바란다.

1.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옛 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나온다. 그래서 징계를 받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다. 성경책 보고 카피하면서 담배피곤 했다. 그래서 옆에서 내가 옆에서 ‘삼촌, 쉼!’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서도 항상 스트레스 받고 돌봐야 하는 게 어 대장자였다.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결국에는 이가 다 빠져서 젊은 나이에 틀니를 맞았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너무 길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맞는다. 그 때 빨리 깨달아야 한다. 강단말씀을 보고 나를 배워야 한다. 고집 피워서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굉장히 많다. 사단은 끈질기다. 불신앙의 생각, 체질을 제대로 못 바꾸게 한다. 그래서 유다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라고 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 그 모습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빛이 들어가는 한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때 빛이 임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1)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것이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리켰도다’ 표현도 참 심하게 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남편이나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자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보여주시며 오직 예수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안 되도 괜찮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멀리 보시고 성령충만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2)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밝을 뿐이니라’ 1장 13절에 왜 그렇게 했는가. 중간에 보면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도라’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행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말장에 머느리가 큰 짐에 가는데 너무 가기 싫다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요구했어? 그런 말 안 했잖아!’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한다. 1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여러분이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표현한 것이다. '나도 너무 힘들고 내게도 너무 짐 같다.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자제였다.

(3)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1장 23절에 보면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꺾으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이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 때 그 사람들을 끌고가서 죽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참으시는데 무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면 그 질투가 너무 무섭지 않은가.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를 안 받아줘서 그 가족을 죽인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이 거역했을 때 무서운 주님이 짓을 알기를 바란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씻어져서 복음화 되어서 감사하지만 신약에 살면서도 구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도 있다. 빨리 빠져나와서 안약의 길을 걸고 신약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신약에서 말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아버지의 친구 장로님은 하도 맞아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구약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렵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면 해방, 자유,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 대중 앞에서 '하나님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것은 완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거기까지 그 영적 서밋까지 이르러야 한다.

(4)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다. 앗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 앗수르와 싸우자' 눈치를 봤더니 싸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앗수르와 힘을 합쳐서 조공을 바치면서 종살이를 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강대국, 세상, 사람을 의지한 것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장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팔백만과 어려운 당하나가 직장 떠러 치지 말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축원한다.

(5)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산양 중에 가장 큰 불산양은 강단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이 정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부른 다음에 그 입을 숯불로 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이사야 너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습게 생각했다. 왕, 권력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돈, 집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망해버렸다. 여러분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절대 안 된다.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성경 안 맞는 사람이라도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 지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야지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완전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부사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 랍넛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임을 약속하셨다.

2. 그렇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틀의 언약은 무엇일까.

(1)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과 생명을 가진 랍넛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시는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소수를 불러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다.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해있다. 여러분이 랍넛트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어서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를 바란다. 그것이 랍넛트의 축복이다. 우리는 남은 자, 남길 자가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암나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암나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앗수르에 의해 망하는데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는가.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사단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때 암나누엘을 말씀하셨다. 개인문제, 가정문제, 해결의 방법도 암나누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다. 이 암나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깊은 호흡기도이다.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파곤할 수도 있다. 그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1초 만에 답을 주신다. 어렵지 않다.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암나누엘이다. 암나누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는가? 금요기도회에서도 이 말씀을 했다. 암나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수양회 간다고 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다. 최 목사님께서 노화하고 계시는데 밥값을 다 수양회비로 들어갔다. 젊은 목사가 돈 쓰곤 했는데 그 목사와 함께 다녔다. 암나누엘이다.(웃음) "자녀가 조금 부족했어. 아식 먹으로 안 가나" 하면서 네 명과 같이 했다. 그 친구와 함께 불타다보면 된다.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는데" 그 목사가 복의 근원이었다.(웃음) 돈 있는 사람이 불타면 다쳐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주님을 믿으라. 말을 해라. 그것이 기도이다. 부탁을 해라.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어렵지 않다.

(3)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6절-9절이다. 8절부터 보면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폭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위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바꾸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는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있어봐 나를 믿어봐. 나의 말씀대로 살아봐.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의 나라가 될 자여' 그러다가 천국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4) 위기에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가진 랍넛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후암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재앙과 저주는 없어지고 응답의 절대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는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0장 1절-5절이다. 이번에 WRC에서 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번 제주도 캠프 때 이 응답이 있을 줄 믿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아들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는다. 그러다가 어떤 응답을 받는가. 이사야 63장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번에 바우어에서도 이런 응답들이 있었다. 대통령들이 모인 곳에 류 목사님이 직접 가서서 행사에 참여하셨다.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라서 행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때마다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 랍넛트들을 통해서 왕들을 비추는 광명, 복음의 빛이 임한 줄을 믿는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에 많이 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이 갈 것이다. 어떤 랍넛트가 말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해외에 가려고요.' 결국 갔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안기어 올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오늘도 몇 개월 동안 한곳에 있었던 마나가 주일학교에서 파송 받았다. 현장에 돌아가서도 인터넷으로 계속 다락방하라고 미션을 줬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기업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안기어 올 것이다. 60장 5절에 보면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올리라' 바다의 부는 최고의 부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복음가진 랍넛트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쓰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약간 복음이 약해지니까 옆 나라들이 힘들게 하하지 않았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캠프의 빛을 발할 때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실 줄을 믿는다. 그 그 루터가가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들이 전도 캠프의 빛을 발할 때 이런 응답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5) 전도캠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캠프 제자들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번에 제주에도 캠프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도캠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캠프 제자들이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도 위로해야 한다.

② 캠프요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야 한다. 이사야 40장 8절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를 바란다.

③ 캠프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제주도, 송파, 오금, 강동, 서울에 전하는 자여.' 이 말이다. '나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을 듣고 약간 시험에 들었다. 한라산에 올라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웃음) 이번에는 사기포로 가는데 차타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봐주시겠지 했다.(웃음) '나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다고 여러분이 소리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담담함을 가지고 힘써 전하라는 것이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해야 한다.

④ 하나님께서 캠프 제자를 직접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2장 6절이다.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⑤ 캠프 제자들을 통하여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며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방 아닌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생각에 갇히고 염려, 근심에 갇혀있다. 여러분이 빛으로 복음으로 잔치바기를 바란다.

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하고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임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적용할 CVDI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언약과 이사야서 6장 13절이다. 최고의 언약은 거룩한 씨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시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랍넛트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다.
2. 비전과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개 나라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선교캠프, 전도캠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3절이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3. 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우리의 꿈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 그러다가, 흩어졌지만 랍넛트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암나누엘로 결론을 내릴 때 가능해질 것이다.
4. 이미지와 기도와 이사야서 53절이다. 이사야는 깊은 기도 속에서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봤다. 우리도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십자가의 도를 밝히며 묵상해야겠다.
5. 실천이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겠다. 우리가 베풀어 할 옛 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과 새 틀. 현장에서 이사야처럼 그루터기의 역할, 랍넛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그루터기로, 랍넛트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랍넛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남길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